



스타일IN별무리

글-별무리 문집제작팀

2014년 2월 10일부터 2월 19일까지 우리 한 별이 되다



BMR

BMR

스타일IN별무리

2014년 2월 17일

글 박서로, 박지훈, 황서하, 이성민, 박성연, 김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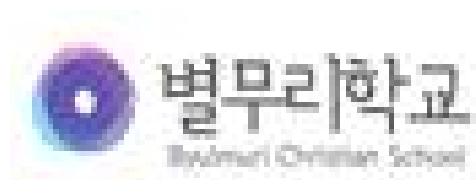
제작 팀장 박서로/ 편집 박지훈/

책 표지 디자인 김가은



스타일IN별무리

글-별무리 문집제작팀



<목차>

1.별무리 학교의 독서생활_서로

2.별무리 학교의 노는 스타일_성연

3.별무리 학교의 연예인 인지도_서하

4.별무리 학교의 악기사랑_지훈

-문집제작프로젝트!

-별무리 학교의 선후배간의 예절

5.별무리 학교의 이미지_가은

-치킨소감문

-영화소감문

-프로젝트학습에 대하여

-도전 책 출간

6.퀴즈타임

7.포토존

8.이래서 별무리가 좋다._성민

-별무리 학교의 장단점-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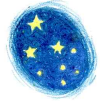
한자리에 여전히_서로

자장면 짬뽕-가운

사계절의 변화

너의 마음 속 점을 연결하면 별이 된다

- 생풍샘



<별무리 독서 이야기>

6학년 박서로

우리학교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독서에 몰두 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침의 시작을 독서로 하는 사람, 점심시간 내내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 도서관에서 열심히 책을 고르는 사람들이 속속히 눈에 띈다.

아마도 별무리학교 학생들은 적지 않은 개수의 책을 읽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별무리학교 도서관은 책의 개수가 많지는 않지만 모두 사람들이 기부하고 싶은 소중한 책을 기부하거나 학교에서 우리를 위하여 좋은 책들을 모아 도서관에 모인 것이다. 우리학교에도 좋은 책을 찾노라면 많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우수도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해서 쉽고 세밀하게 정리한 책, 또한 특별한 책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유명 미술사진을 전문으로 모아놓은 미술서적이 있다.

우리학교 학생들이 많다고 느끼진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학교 학생들이 도서관에 있는 책들에 대해 더 집중하고 그 책들을 먼저 마스터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별무리학교 학생들이 주로 어떤 책을 읽는 지, 그 동안 얼마나 읽었는지 등에 대해서 아직 밝힌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과연 우리학교 학생들은 그동안 주로 어떤 책을 읽었는지, 그동안 얼마나 읽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한다.



나는 지금까지 대략 12권의 소설책을 읽었다. 나는 소설책을 좋아한다. 소설책에서는 구수한 이야기, 따듯한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기대되는 이야기, 신비로운 이야기 등 정말 많은 부분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그래도 최소 20권은 읽었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나도 참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 내가 읽었던 책 중에서 추천할 책은 나는 아버지의 친척, 무익조, 난곡에 뜨는 별 등이 있다.

이제 우리 별무리학교 학생들의 독서활동에 대해서 시작하겠다. 황서하 학생은 별무리 학교에 와서 지금까지 대략 10권 정도의 책을 읽었다고 한다. 좋아하는 장르는 판타지, 역사이고 추천하는 도서는 해리포터 시리즈 이다. 강찬민 학생은 10권도 못 읽은 것 같으면서 무안한 표정을 지었다. 좋아하는 장르는 재미있다면 상관없다고 말했다. 추천도서는 기억이 안 난 다면서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책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찬 학생은 별무리 학교에 와서 지금까지 10권 정도의 책을 읽었고 좋아하는 장르는 워인전, 판타지라고 말했다. 추천도서는 나니아 연대기였다. 안진영 학생은 별무리 학교에 와서 지금까지 대략 20권의 책을 읽었고 좋아하는 장르는 역사이며 추천도서는 마법의 시간여행 40권이였다. 최현서 학생은 별무리학교에 와서 지금까지 대략 15권을 읽었으며 여자답게 좋아하는 장르는 판타지, 로맨스 였다. 추천도서는 트와일라잇이였다. 이예인 학생은 별무리학교에 와서 무려 30권의 책을 지금까지 읽어왔다고 한다. 좋아하는 장르는 추리소설이고 추천도서는 설록홈즈였다. 이제 막 6학년이 되는 나이에 선배들보다 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김윤서 학생은 별무리 학



교에서 지금까지 10권미만의 책을 읽으므로 강찬민 학생과 비슷한 권수의 책을 읽었다. 좋아하는 장르는 판타지였으며 로빈후드의 모험을 추천도서로 꼽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학교에서 20권의 책을 읽음으로서 소설장르의 책을 좋아하는 김가은 학생은 추천도서로 비밀정원을 꼽았다.

자랑스러운 학생으로서 무려~70~80권의 책을 별무리학교에 와서 읽은 이성민 학생은 좋아하는 책의 장르로 추리소설을 골랐으며 추천도서는 아르센 뤼팡이었다. 우리학교에서 몇몇 학생들이 지금까지 읽은 책의 권수를 보니 나도 더 분발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로서 우리학교에도 책벌레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내가 조사한 학생들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판타지장르의 책을 좋아한다고 밝혔다. 판타지는 소름 돋는 개성을 뽐는 이야기와 신비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화려한 책의 내용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다.

과연 다른 학생들도 대부분 판타지장르의 책을 좋아할까?

이번에는 과연 우리학교 학생들은 책을 읽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 하는 의문점이 든다. 그래서 한번 조사해 봤다.

신경계가 마구 혼동되어 재미를 느낀다.- 임동현

마구빠져든다- 김은지

아무 생각이 없다- 김세연

책의 줄거리와 앞 내용을 파악한다- 김선겸

책을 읽으면 헤어 나오지 못할까 걱정된다- 강한빈



머리에서 그 책이 만들어진다- 임승진



그저 재밌다.- 김희연

책을 읽을 때 사람이 느끼는 기분은 다 다르다.

우리학교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다.

머릿속에 강렬한 자극을 받는 사람.

머릿속에 그 책이 살아나는 사람.

그저 멍하니 읽는 사람.

그저 황홀한 사람.

다양한 기분들이 있다.

이렇게 다 다르고 다양한 기분을 느끼므로 책을 읽는 사람은 서로 공유하고 책에 대하여 대화와 토론을 나눌 수 있음을 여기서 깨닫게 된다.

나는 우리학교에서 책에 대한 습관을 여러 사람에게 배워야 된다고 믿는다. 임승진 학생은 판타지소설 책을 좋아하기로 유명하다. 몇몇 사람은 그런 걸 너무 좋아한다고 뭐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승진이 형의 좋아하는 책을 열심히 읽고 그와 관련된 책을 많이 읽는 그런 습관이 배울 만 하다고 느낀다.



작가들도 흔히들 그런다. ‘어떤 책에 대하여 그 책만 읽는 것보다 그와 관련된 책 수십 권을 읽는 것이 훨씬 막대한 도움이 된다.’ 라고. 나는 딱 임승진 학생이 수많은 종류의 판타지 소설을 읽어가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의 책을 위하여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한다는 것이 정말로 존경스럽다.

그리고 정진서 학생은 손에서 책을 안 놓는다는 말이 있었다. 우리 엄마도 칭찬을 했다. 나도 전에 목격을 한 적이 있었다. 하루는 어떤 이유였는지 학교에 일찍 출석 하였는데 정진서 학생이 한배 뺨과 같이 새벽독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다.

그 때부터 시작하여 하루 종일 열심히 책을 읽는다면 정말로 책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일 것 같다. 나는 책을 읽을 때 정말 빠지는 경우가 아니면 오늘은 꽤 읽을 만큼 읽었다 싶어서 스스로 일단 그만 읽는다. 독서란 부릅뜨고 조금한 자신의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읽는 것이 독서인 것 같다. 그래서 정진서 학생의 하루 종일 손에서 놓치 않는 독서 습관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별무리학교 학생들끼리 서로 독서에 관한 노하우와 독서하는 법을 서로 나눠가며 책을 읽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독서란 자기의 머리가 남의 머리로 생각하는 일이다 -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분명 독자가 작가의 책으로 인하여 생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머리를 통해 어떤 세계를 담듯이

우리 별무리 학생들은 서로 책 읽는 자세, 책을 재밌게 읽는 법, 책을 진정으로 마음에 새기는 법에 대하여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



지는 그런 별무리 독서법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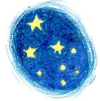
앞으로도 우리 학교 학생들이 앞으로도 열심히 책을 읽었으면 좋
겠다.

이런 말이 있다.

높은 곳에 오르면 마음이 밝아지고, 맑은 냇물에 몸을 적시면 속
세를 떠난 것 같으며, 눈 오는 밤 독서에 잠기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다. 이런 취미가 곧 인생의 참다운 모습이다. -채근담

책을 읽는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과 어떠한 즐거움과도 어깨를 나
란히 할 수 있는 하나의 광대한 즐거움이다.

독서를 잘 하는 사람은 마땅히 책을 읽어 손발이 찢추는 경지
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형식에 구애받지 않느니라.
사물을 잘 보는 사람은 마땅히 마음과 정신이 녹아서 물건과 하나
가 될 때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래야 외형에 구애받지 않느니라.
-채근담



일러스트레이션 황중환 기자

독서는 한마디로 우리들 마음에 지식의 소재를 제공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우리가 읽은 것을 제대로 우리의 것으로 익히게 해주는 것은 사색을 통해서이다. -존 록

그리고 이 것도 기억하자.

우리 별무리 학교 학생들은 모두 책이란 놀라운 도구를 꼭 능숙히 사용해서, 읽고 사색하는 스킬의 정점을 찍었으면 한다. 꼭 그러도록 하자.

독서를 하나를 터득하면 결국은 하나의 방법이 또 필요하다는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 것 같다. 독서를 완성하려면 결국은 사색을 스스로 통해서 독서를 완벽히 터득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 별무리학교 학생들은 꼭 독서를 능숙히 다룰 것이다.



나는 이 문서를 만들면서 정말 즐거웠던 것 같다. 하루는 문서에 대한 열정적인 불이 타올랐고 그 다음 날엔 작성하다가 그래 좀~~ 쉬면서 하자. 그 다음 날엔 왁자지껄 떠들기 시작했다. 그 다음 날엔 전에 낭비해던 아까운 시간들이 다시 기억되어 더욱 더 열심히 작성했다.

결국은 시간 활용도는 떨어졌지만 도전정신을 부지런히 다시 일깨울 수 있었고 조원들과 함께 열심히 더 즐겁게 작성했고 서로 좀 더 친해 질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컸던 같다.

문서를 작성하면서 더 많은 것을 얻었던 것 같다.

비록 쓰면서 어설픈 부분도 정말 많았지만 우리 조원들과 내가 열심히 도전정신을 발휘해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한배 뺨한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결성되고 하도록 이 프로젝트를 결성하게 해 주셨고 즐겁게 특별하게 진행해 주셨기 때문이다.

정말로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다음에도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한다.



별무리학생들의 노는 스타일

5학년 박성연

(1) 할거 없을 때 노는 것

-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뺏다. - 잔다.
-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2) 음악 (노는 것)

- 노래를 부른다.



- 악기를 연주한다. (기타,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북 등)



(3)보드(학교에서 빌린 것)

- 가위바위보 보드게임을 한다.
- 구슬 쌓기 보드게임을 한다.
- 기타 등 의 보드게임을 한다.



- 전략적인 보드게임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생각하기 때문에 놀이를 더 잘 할 수 있게 된다.

(4)몸으로(노는 것)

- 운동을 한다. (축구를 한다. 농구를 한다. 등)
- 탈출맵을 한다.
- 술래잡기를 한다.
- 바운드볼을 한다.
- 배드민턴을 친다. (친구들과 같이 논다.)

이렇게 몸으로 하는 놀이를 하면 운동이 된다.

-툭 치고 도망친다.





(6)별무리학교에서 먹는 치킨!!!

- 별무리학교에서 치킨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로 매우 대단한 일이다.

별무리학교 학생들에게는 치킨을 먹는다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왜냐하면 치킨은 간식으로는 많이 안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치킨을 먹는 것은 노는 것 이상으로

신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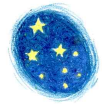
나도 밖에서는 치킨을 별로 안 먹는데 별무리학교에서는 왠지 모르게 꼭 치킨을 먹고 싶다.



먹고 싶어진다. 희 안 하다. (-별무리 학교에서-)



<2014 2/12 수요일 -박성연->



(7)별무리학교에서 놀 수 없는 것

휴대폰 게임(다 못한다. 별무리학교를 나가야지 할 수 있다.)

-휴대폰 받는 날 월~금 중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전화만 가능하다.

컴퓨터 게임(가끔 star craft라고 어떤 행사 같은 것에 의해 선생님의 동의를 받으면 할 수도 있다. 그 외의 게임은 못 한다.)





(8)별무리학교에서 놀 수 있는 것

- 탈출맵을 한다.
- 술래잡기를 한다.
- 바운드볼을 한다.(강당에서 노는 것)
- 배드민턴을 친다.
- 툭 치고 도망친다.
- 운동을 한다. (축구를 한다. 농구를 한다. 등)
-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땀다.
- 잔다.
-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 가위바위보 보드게임을 한다.
- 구슬 쌓기 보드게임을 한다.
- 기타 등 의 보드게임을 한다.
- 노래를 부른다.
- 악기를 연주한다. 등 노는 방법은 다양하다.





(9) 별무리 책 만들기 프로젝트 만들 때 느낀 점

책을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많이 복잡했다. 그리고 책을 만들려면 책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며 책을 만들려면 일반인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 책만을 만들려고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사진 자료, 글 자료 등 많은 자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집 프로젝트에서 나중에 이 책을 다 만들면 뿌듯할 것 같다.

내가 책을 만들면 무슨 느낌인지 궁금하다.

(10) 별무리 학교에서 (홈스테이) 에서 노는 것

- 홈스테이에서는 잠 자기 전 무서운 이야기나 재밌는 이야기 등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나눈다.





별무리학교 학생들의 연예인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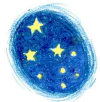
7학년 황서하

요즘 뜨는 영화, 드라마에는 우리 별무리학교 학생들의 이상형 혹은 좋아하는 연예인이 많이 출연하곤 한다. 예를 들면 별에서 온 그대에 김수현, 전지현 등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별무리학교 학생들의 연예인 인지도를 알아보려고 한다. 여학생들은 요즘 차세대아이돌이라고 뜨는 EXO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전지현, 박보영, 소녀시대, 수지, 민아 등 많은 연예인들이 인지도가 강하다. 대부분 물어보면 잘생겼다. 노래를 잘 부른다. 청순하게 예쁘다. 등 여러 가지 좋아하는 이유가 독특했다.

하지만 종종 서로의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취향존중이 잘 되지 않은 경향이 가끔가다 보면 있다.



예를 들어 남자가 남자연예인을 좋아한다고 게이라는 별명이 붙고 서로 연예인 더 노래 부르고 인기 많다고 충돌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보일 때도 있다. 왜냐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호해주고 상대방 연예인을 잘 낚다고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이다.

나는 앞으로도 많은 별무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꼭 좋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별무리 학교 선후배간의 예절

7학년 박지훈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선후배간의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 선후배 간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아서 좋은 점은 선배와 후배간의 사이가 결코 어색하지 않고 친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후배들이 선배들을 친구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후배가 선배에게 동급생과 같이 행동을 하니 좀 애매한 것 같다. 물론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선배와 후배가 서로 공감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후배들은 동급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니 선후배 간에 지켜야 할 선을 넘는 후배들이 간혹 있다. 진심으로 지적을 해주니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말해도 장난으로 받아들이기 십상이다. 이런 경우 선배의 입장에서 매우 난처하다. 존댓말을 쓰지 않으면서도 친밀하고 선후배간의 예절을 지킬 수 있는 보족한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나는 생각해 보았다. 생각하던 중 나는 무심코 선배에게는 무슨 특별한 권한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선배에게 옐로카드 같은 것은 선배가 충분한 충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를 지나칠 경우에 주고, 그 경고의 수가 많이 누적되면 선생님과 면담이나 반성문 같은 것을 쓸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선배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는 ‘마음의 소리 함’에 넣으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선배에게도 제제 할 권한이 있는 생기는 동시에 후배들에게도 억울함을 알릴 수 있는 ‘신문고’와 같은 것이 생기니 일석 이조 일 것이다.

최후의 수단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선후배간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동생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선배를 반말을 쓸 수가 있다고 선후배간의 도를 넘지만 않는다면 이런 제도는 시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는 것 보다는, 우리들이 아름답게 직접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린
나 자신만을 위해
정신없이 달려 왔지만..
주위를 한번 돌아보면,
함께 손잡고 가길 원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별무리 스타일 문집제작 프로젝트!

7학년 박지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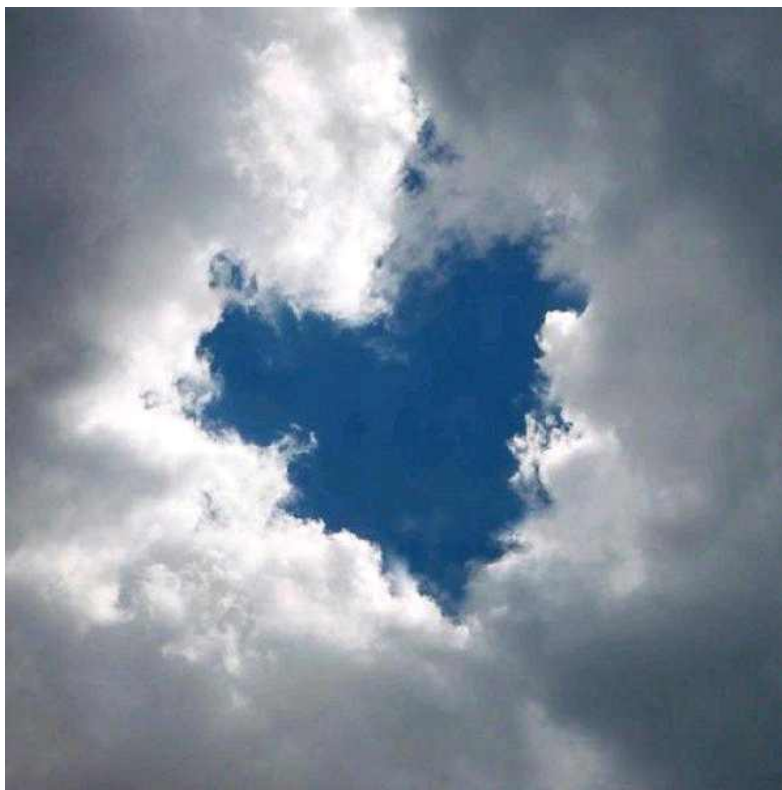
나는 지금 별무리 스타일 문집제작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3지망에 적었다. 왜냐하면 영화감상 아니면 해안 생태 탐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 여기에 뽑혔다는 것을 들었을 때 “진짜...? 거짓말 아냐?” 라는 생각이 앞섰다. 순간 친구들과 혼자 떨어지니 기분이 묘했다.



마음을 진정시켰을 때 쯤 별무리 스타일 문집 제작 인원은 도서관으로 오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도서관에 내려갔다. 그곳에는 서하와 성민이가 있었다. 그 외에도 서로와 아직 어려 보이는 귀여운 5학년 2명이 있었다. 우리 6명은 처음에 매우 어색했다. 너무 어색해서 말도 잘 못했다.



그러나 곧 이어 박한배 선생님께서 들어오시고 우리는 드디어 긴 침묵을 깰 수 있었다. 박한배 선생님께서 대충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다. 계획을 듣다보니 사실 조금 반전이었다. 그 계획에는 마지막 날에 다 같이 대전으로 놀러가는 것이다. 놀러가서 영화도 보고, 외식도 한다고 하니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여기 오길 정말 잘됐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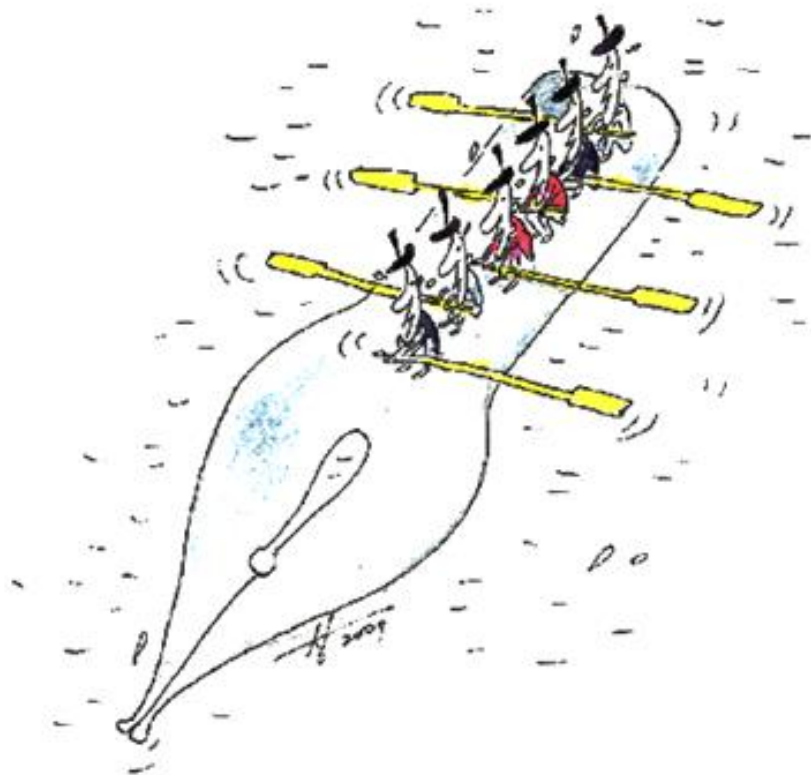


대신 금요일 전까지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래도 월 화 수 목 금 모두 우리가 계획을 짜는 것이니 정말 좋았다. 박한배 선생님은 우리가 틀에 박혀 있는 것 보다는 자유롭고 배가 산으로 가도 된다고 하셨다. 그래서 계획에도 우리는 2시간 동안 원고를 타이핑 한다고 하면, 끝나고 1시간을 쉬고, 3시간을 타이핑 한다 그



라면 1시간 30분을 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나는 3지망 이었는데도 여기에 와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팀원들과 단합해서 회의를 하고, 열심히 굴 먹으면서 원고를 한 장 한 장 완성 할 때 마다 우리는 희열을 느꼈다.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직접 계획한 것처럼 ‘어서 끝내고 열심히 놀자!’ 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가능 했던 것 같다. 음악을 들으며, 먹으면서 느긋하고 여유롭게 글을 쓰니 잘 써진 것 같다. 우리 6명은 웃고 떠드는 사이 원고 1장, 2장, 3장씩 완성되어 쌓이기 시작했다.



수요일 저녁은 박한배 선생님 댁에서 모두 모여 치킨을 먹었으니 찬양이 절로 나왔다. 이렇게 자유롭게 쉬면서 하니까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금요일 날엔 총 정리를 하기로 했고, 목요일 날에 영화를 보기로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영화를 보러 나가는 그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 했겠지만 그날은 가능했다. 이런 식으로 문집을 제작하니 오랜만에 여유라는 시간도 갖고 정말 좋았다.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즐겁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 이런 문집 제작을 적극 추천하고 나도 이런 기회가 오면 또 다시 문집제작을 할 것 같다.





별무리 학교의 악기 사랑

7학년 박지훈

우리 별무리 학교는 공립학교와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악기를 사랑하고 다룰 줄 아는 것이다. 그러나 공립학교도 오케스트라, 밴드부 등이 있기에 의아해 할 수 있다. 그들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우리 별무리학교 학생들은 65% 이상이 악기를 다룰 줄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각반 교실 사물함 위가 기타나 바이올린으로 점령 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놀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미 우리의 일부이고 활력소다. 심지어 7~8 학년들은 5분의 쉬는 시간도 쪼개어 기타를 연습하는 학생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악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별무리 축제”라는 시간을 통해 나타냈다. 학생들은 9개의 프로그램 중 7개나 연주를 직접 했다. 심지어 뮤지컬 음악도 직접 연주 했으니 실력 또한 인증 되었다.



별무리 학교는 음악을 할 때 정말 좋은 장소다. 왜냐하면 학교에 각종 앰프, 건반, 드럼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습만 하고 끝이 아니다. 이렇게 연습해서 청소년 노방 찬양을 하는 학생들도 있다. 달랑 기타 하나만 들고 가지만, 이들을 주님께선 축복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별무리학교 이미지는 어떨까요?

5학년 김가은

우리가 생각하는 별무리학교의 이미지는 어떨까요? 별무리학교를 생각하면 별이 생각나요? 기독교학교가 생각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신 이 땅에 방해하려고 하는 악마들 때문에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별무리학교는 끝까지 참으며 서로 공동체가 되는 별무리학교가 되었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선생님께 상담하며 누구보다 더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한층 더 성장되는 별무리인 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별무리학교는 겉으로 봤을 때는 꽤 완벽해 보이고 건물도 예쁘고 멋지게 보입니다. 하지만 속은 슬픈 점도 있습니다. 이곳에 오는데 조금 힘든 교통을 이용하며 오지만 여기에 오면 배울 것도 많기 때문에 안 올수가 없습니다. 별무리학교에 오면 별무리학교에 오면 힘들 것 같다고요? 네..... 힘든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고쳐나가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별무리인입니다. 별무리인은 겉모습만 좋은 것이 아니라 속모습도 겉모습과 같이 서로 사랑하여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별무리인입니다.



(자료제공: 일기예보나들의블로그)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생각한 별무리 학교 이미지

5학년 김가은

(학생들) [별: 박0연/이0인/황0하/왕0선/곽0주/우0/

김0서/오0영/서00바/배0빈/이0주/이0아/12명]



[기독교 대안학교, 학교: 박0훈/안0영/안0은]3명



[**나**: 고0/안0영]2명/[내인생:안0은]1명/

[한 부족 : 박0로]1명

[**웃**: 박0균]1명/[독서: 김0준]1명/

[아무생각안남: 김0수]1명

[**기숙사**: 정000아]1명/[산: 김0연]

(선생님)[**참 좋은학교, 별들이 반짝이는 학
교, 이 별은 바로 여러분들:** 손0성]

[**별** : 신0혜]/[사랑, 희망: 장0훈] / [**행복한아이들**: 박0배]





치킨소감문

5학년 김가은

별무리 학교에서 I박스의 진정한 치킨을 먹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이렇게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을 수가 있나!!! 솔직히 SI감염 때문에 내 목숨이 날라 갈까봐 걱정 되었지만 그래도 역사 치킨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역시 치킨이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주신 박한배쌤에게 감사합니다. 역시 박한배쌤입니다. I지망으로 별무리스타일문집제작을 하길 잘한 것 같다.

2014년 2월13일 수요일





영화를 보며.....

5학년 김가은

2014년 2월 13일 목요일

나는 영화를 엄청 좋아한다. 원래는 그냥 영화를 보통이었는데 우리 집이 이사를 하면서 CGV와 가까운 아파트에 이사를 했다. 그래서 영화를 자주 보다보니 내가 영화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영화를 보러 대전 터미널에 가는데 엄청 기분이 좋고 설렘다. 그리고 우리가 본 영화의 제목은 '로보캡'을 보았다.

로보캡은 대충 아이어맨과 조금 비슷한것과 같다. 그리고 예전의 로보캡과 이야기 내용은 비슷한 것 같고 재미있었다.





퀴즈타임

***추신: 당신은 점점 빠져들 거야**

1.참새의 영어 이름은?()

잭크 왜냐하면 **잭크** 아고 우니깐

2.이가 보이는 연예인은?()

이보영 왜냐하면 이보영 **이가** 보인다고영

3.내가 좋아하는 배우는?(**못** **맞출**걸)

주원이 짜 세지

4.별무리 마을에는 집이 모두 몇 개
있을까요? (개)

사실은 나도 몰라 능력껏 알아보셈

5.우리 학교 동아리 개수는?(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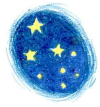
지금은 프로젝트 학습중이라 나도 모르는데... 지금은 몇 개니?(미래의 나에게 물음)



포토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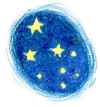
(국토순례)





별무리 학생들이 힘들게 걷고 있는
모습이에요.. 참 힘들었죠...

별무리 학생들 선생님들 파이팅!!!



(별무리에 눈이 내렸어요)



경치가 너무 좋죠??

별무리 학교는 눈이 내리면 교통수단
이 조금 불편하지만 경치는 아주 예
뻐요 역시 별무리 학교는 경치가 예
쁘네요~~



역시 별무리!! 산이 정말 멋지네요
사진제공:나들님의 블로그





고구려 시스템(주)님의 블로그
ke님의 블로그
jmcateringservice님의
블로그



별 무 리 문 집 제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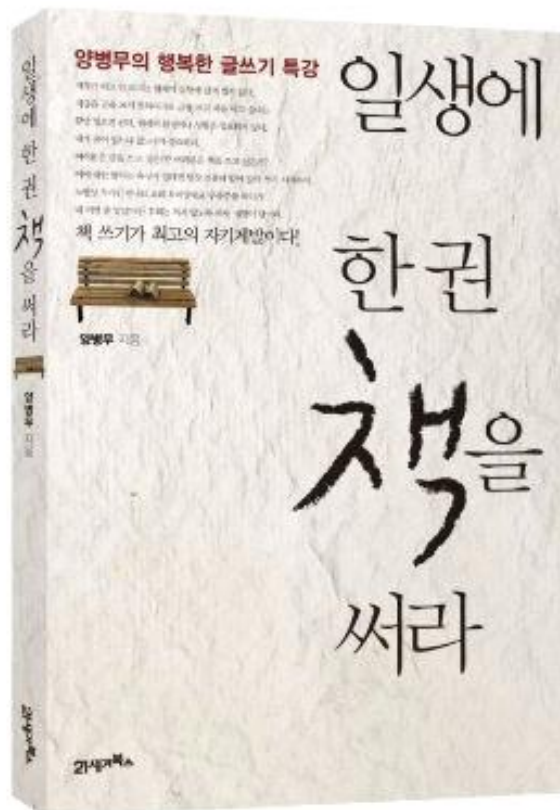
5학년 김가은

별무리 문집제작을 하며...

별무리 문집제작은 2014년 2월10일에서2월14일까지 실행되었다.

맨 처음에는 내가 글을 쓰다니!!! 머리가 아팠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양병무 작가님께서 쓴 일생에 한권 책을 써라 라는 책을 읽고 책을 어떻게 쓰는지 이 책의 주제와 어울리는 타깃을 찾기, 마케팅 전략 등등을 알고 조금씩 책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책을 쓰는 것을 조금 쉽게 느껴졌다.





2014년 2월 11일(화요일)

맨 처음으로 책을 썼다. 별무리 학교 이미지는 어떤가요? 라는 것으로 타킷은 별무리 학교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을 정한 뒤 글을 쓰니 알기가 쉬워졌다.



2014년 2월 12일 (수요일)

이번에는 별무리 학교의 추억을 말해줄 사진자료를 모았다. 막장 자료를 모으니 우리 학교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더 성장되었다는 것 등 등이 생각났다. 자료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엄청 많아서 좋았는데 용량 제한이 있어서 별로 못했다. 그리고 박한배 선생님께서 큰 굴 박스 1개를 주셨는데 우리가 다 먹어서 우리도 좀 놀랐다.

그리고 8시쯤에 박한배 선생님 집에서 치킨을 먹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2014년 2월 13일(목요일)

오늘 오전에는 원고만 계속 썼다.

그리고 오후에는 대전터미널에 가서 '로보캅'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정말 재미 있었다.

그리고 금산의 어느 중화 요리집 '소미연'이라는 곳을 갔는데 3명을 짬뽕을 4명은 자장면을 먹었는데 짬뽕이 진짜 맛있고 얼큰했다. 박성연은 자장면에 반한 것 같이 다 먹고 나서도 자장면 애기를 하였다. 엄청 재미있는 하루 었는 것 같다.



2014년 2월 14일 (금요일)

나는 지금 이글을 쓰고 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의 글을 쓰고 신기한 일과 재미있는 일이 많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별무리 스타일 문집제작을 잘 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이제 다음 주면 나는 6학년이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지금 막 된다. 그래도 끝까지 파이팅!





도전! 책 출간하기

5학년 김가은

I.출간 기획서 만들기

- 설계도 만들기(원고만 쓰면 시행착오를 겪는다.)
- 시간을 투자한 만큼 더 좋은 책이 나온다.





-자료를 모으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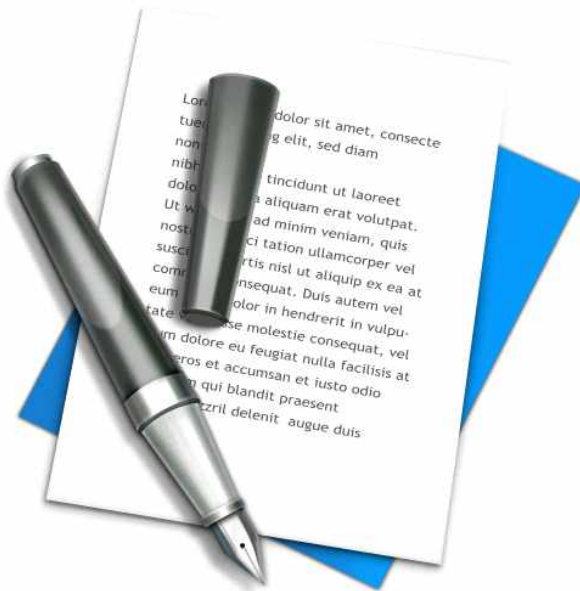
- (1.글은 머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쓰다.)
- (2.세부목차잡기)
- (3.신문이나 잡지 기사)
- (4.스크랩이나 컴퓨터에 자료모음집 설치)

-기획과정

- (1.책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것인가를 계획한다.)
- (2.발간목적, 예상 독자계층, 책 제목, 목차, 개요, 발간시점)

-집필하는 과정

- (1.콘텐츠, 알찬원고)
- (2.꾸준히 글쓰기 그러면 자신감이 올라간다.)





-편집하는 과정

- (1.원고가 완성되면 책을 형태로 만드는 게 편집)
- (2.출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 (3.표지, 책의 날개, 저자약력, 추천사, 책의 가격
- (4.보도자료[통해 빠진 내용, 더욱 강조할 내용요소 보완]



-마케팅전략

- (1.책이 알려지는 게 중요)
- (2.마케팅에 최선을 다한다.)





이래서 **별**무리학교가 **좋**다!!!

7학년 이성민

별무리학교는 mission school이다

이 mission school의 장점을 지금부터 소개를 하려고 한다.

일반 학교에서는 하지 못하는 일들을 별무리학교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하자면

1)국토순례

국토순례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린다.

걸기를 통해 순례자의 인내를 배운다.

공동체를 섬김으로 연합의 유익함을 배운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경험한다.





2) 주제별 테마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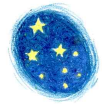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학, 역사, 문화, 사회적인 이슈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경험하고 이 시대를 이해하는 기회로 삼는다.



3) O교시 체육

학생들이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친숙하면서 비경쟁적인 즐거운 분위기에서 3가지 운동요소(유산소운동(심혈관), 근육강화, 골격강화)를 목표로 달리기와 게임 및 기타 흥미로운 체육활동을 통합시킴으로 종합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다.





3)양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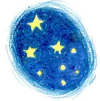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넘어서 친밀한 소그룹 모임



4)말씀 묵상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내용을 말씀 저널에 기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5)기도시간 - 매일 저녁 공식적인 개인 기도시간 뿐 아니라 주 | 회 이상의 학생 자율 기도 모임 시간을 통하여 자신 뿐 아니라 친구와 민족, 세계를 기도로 품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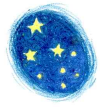
항상 기도와 헌신으로 아이들을 위해 애쓰시는 부모님 같은 별무리선생님이 계시고 선생님께서 상담을 해주시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해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성적으로 이기기 위해 불필요한 경쟁을 할 필요가 없고 일반학교에서는 매일 밥 먹듯이 볼 수 있는 학교 폭력을 별무리에서는 볼 수 있는 일이 없다.

또한 일반학교와 달리 선후배들과 잘 어울릴 수 있다.

공기가 아주 맑고 몸에 좋은 건강요소가 많은 곳에서 있기 때문에 몸 안에 있던 안 좋은 요소들이 빠져나와서 몸이 건강해집니다.

도심 속에서 볼 수 없는 별이 많고 노을이 도시보다 예쁘다.



별무리학교의 단점

7학년 이성민

내가생각하기엔 단점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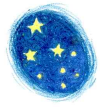
학교로 오는 방법이 매우 번거롭고 돈이 많이 든다.

학교로 입학할 확률이 낮다.

또 필요한 물건을 구하기가 어렵다.

뭐 이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다.





— 시 —

한자리에 여전히 _ 박서로

자장면 짬뽕 _ 김가은

사계절의 변화 _ 박성연



한 자리에 여전히

박서로

씨앗으로 심어져
싹을 틔우고
성장하여 우람하게 자란 나무가 있다.
씨앗으로 심어져
싹을 틔우고
성장하여 아리따게 피운 꽃이 있다.

한자리에 여전히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늘을 만나고 바람을 만나고 햇살을 만나는 나무와 꽃이 있다.
어느새 건물이 들어서고,
옆에 있던 잡풀들이 뜯기고,
먼지와 흙이 가끔씩은 쌓여도.

여전히 하늘을 만나고 바람을 만나고 햇살을 만나는 나무와 꽃이 있다.
바람이 지나가며 나무의 잎을 스치고, 벌레가 꽃잎을 갉아먹어도
여전히 하늘을 만나고, 여전히 바람을 만나고, 여전히 햇살을 만나는 나
무와 꽃이 있다.

그들은 사람보다는 더 적은 즐거움을 즐길 수 밖 에 없기에,
사람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본다.
조용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도 그들은 소리없이 세상을 보고 있다.

감동은 나무와 꽃과 같이 깃들여
한자리에 여전히 하늘을 만나고 바람을 만나고 햇살을 만난다.
나무와 꽃에게는 지나가는 바람이 마지막바람 같다.



자장면 짬뽕

김가은

누가 자장면에 약타나?

누가 짬뽕에 약타나?

자장면의 까만 소스

짬뽕의 얼큰한 육수

누가 소스에 약타나?

누가 육수에 약타나?

자장면의 싱싱한 채소

짬뽕의 큰 해물

누가 채소에 약타나?

누가 해물에 약타나?

근데, 이거 엄청 맛있다



사계절의 변화

박 성 연

봄꽃이 피고 얼음이 녹고 싹이 난다.

여름은 덥고 비가 온다.

가을추수가 이뤄지며 여러 색깔들로 알록달록 바뀐다.

겨울은 추워지고 하늘에서 눈이 내리며 추워서 동상에 걸려서 죽고 엔진이 얼어붙어 버려 멈춰 버린다.

오래된 타이어 등에 의해 사고가 생긴다.



“너의 마음 속 점을 연결하면 별이 된다.”

- 생풍샘 박한배

-

문집 프로젝트는 내가 좋아서 했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좋아하니 더없이 기쁘다. 난 내 안에 점을 이어서 별을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난 오늘 보았다. 너희 안에 점들이 이어져 하나의 빛나는 별이 되어 있음을.

“배가 산으로 가도 된다”라는 말을 들려줄 때 너희 눈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았다. 프로젝트는 그렇게 너희들의 빛깔을 내고 너희 안에 있는 고유한 향기를 발하는 것이 매력이다. 하늘을 나는 새처럼 생각의 두 날개를 힘껏 펼쳐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본질을 꿰뚫는 매의 눈을 가져라. 남들과 같아지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네 안에 넣어 주신 너만의 지점에서 현상과 문제를 바라보아라. 넌 다른 존재이다. 세상에 남자와 여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수만금의 종류가 있는 것이다. 너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너의 언어로 말해라.

난 오늘 너희들의 가능성을 보았다. 자율과 책임의 보석이 너희 안에 빛남을 보았다. 이번 프로젝트가 너희들에게 소중한 자산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약속하자구나. 일생에 책 한 권 꼭 쓰기를 말아야. 네 안에 슬픔을 부인하지 마라. 네 안에 그림자도 감추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너이다. 글로 써라. 그리고 당당히 그것을 너의 존재의 힘으로 받아들여라.

“스타일 In 별무리” 창간호를 만들어낸 문집 프로젝트팀, 고맙다.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이 문집이 시간의 장벽을 뚫고 그 생명력을 이어나가기를 소망해 본다. 별무리의 시인들...“박지훈, 이성민, 황서하, 박서로, 박성연, 김가은” 그 이름들이 하늘에 별처럼 빛나리라!

2014. 2.18. 문집 프로젝트를 마감하며...



문집 프로젝트를 마치며~

